

# 명례방 모임

(구역 모임)

2025.12.



브루클린교구 베이사이드 한인천주교회

## 1. 시작기도

-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 +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롭게 되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 + 기도합시다.
- ◎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2. 말씀 나눔

- 1) 말씀 듣기 : 콜로 3,12-21(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2독서)
- 2) 침묵 후 다시 한번 말씀 봉독
- 3) 말씀 나눔

### <묵상 더하기>

- 지난 1년간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 지난 1년간 나는 나 스스로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 올 한해, 하느님께 가장 감사할 일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 4) 자유 기도

## 3. 본당 공지사항 및 구역별 공지사항

- 대림시기 기간에 고해성사를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성사표를 제출 안하신 분들은 꼭 사무실에 성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24(수) 22:00에 성탄 전야미사(한+영)가, 12/25(목)에 10:00에 성탄 대축일 미사(한)가 봉헌됩니다. 시간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1/1(목) 10:00 본 성전에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이날은 의무 대축일입니다. 꼭 미사에 참석하셔서 새해 첫날을 의미있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4. 마침기도(성가정을 위한 기도)

○ 예수, 마리아, 요셉이시여

성가정 안에서 저희는

참사랑의 빛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성가정을 향합니다.

● 나자렛의 성가정이여,

저희 가정도 친교와 기도의 자리, 복음의 참된 학교,

작은 가정 교회가 되게 해 주소서.

○ 나자렛의 성가정이여,

다시는 가정들이 폭력과 배척과 분열을 겪지 않게 해 주소서.

상처받거나 걸려 넘어진 모든 이가

어서 빨리 위안과 치유를 찾게 해 주소서.

● 나자렛의 성가정이여,

가정의 거룩함과 불가침성,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저희가 깨닫게 해주소서.

○ 예수, 마리아, 요셉이시여,

저희의 기도를 자비로이 들어주소서. 아멘.

## 5. 사목단상

### “희년을 마무리하며”

교회의 달력, 전례력으로는 한해가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세상의 달력, 그레고리력으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또한 25년마다 돌아오는 정기 희년이었던 올해,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주제로 걸었던 희년은 많은 이들이 성지순례를 하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례의 여정을 함께 걷자고 초대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희년을 의식하지 못했던 한 해였더라도, 우리는 사실 매 순간 초대받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모든 여정을 걸으셨던 작은 순례자셨습니다. 아픈 이들을 만나고, 치유가 필요한 이들, 가르침이 필요한 이들을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가끔은 외딴곳에 머무시며, 아버지께 기도드리기 위해 걸으셨던 그 여정 또한 순례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위해 걸으셨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 따라 걸어야 하는지 그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이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이의 희망이었고, 자신 또한 희망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걸으셨던 희망의 순례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또한 날마다 성전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또 하나의 순례이며,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희년은 마무리되지만, 우리의 삶을 채웠던 여정과 순례는 결코 멈춰질 수 없습니다.

이제 이 걸음은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걷는 이 여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